

KOSPI | 제약과생물공학

# 일동제약 (249420)

## R&D에 집중하는 중소제약사

### 체크포인트

- 동사는 1941년 설립, 2016년 8월 일동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하여 재상장된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제조 기업임. 동사는 만성질환치료제와 항암제 등의 전문의약품과 종합비타민과 유산균제와 같은 일반의약품을 주력으로 판매 중
- 동사는 전통적인 ETC 제약회사로서 기존 R&D에 대한 역량이 다소 약했으나 2020년부터 R&D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1,000억원의 R&D 비용을 집행하며 임상 파이프라인을 구축. 주요 후보물질은 당뇨병 치료제인 ID110521156인데 현재 비만치료제로서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 2023년 9월에 임상1상 IND 승인을 획득하였음
- 동사의 시가총액과 PSR 지표 감안 시, 동사의 기업가치는 아직 R&D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다는 판단. 따라서 현재 가장 기대감이 큰 당뇨병 치료제인 ID110521156에 대한 성과가 도출된다면 동사의 기업가치는 한단계 Level-up 될 수 있을 전망

###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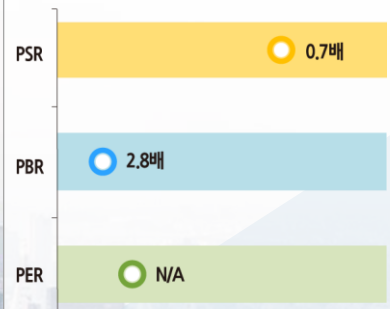


### 재무지표



주: 2022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건강관리산업 내 등급화

###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2년 기준, PBR은 2Q23기준 Trailing, Fnguide WICS 분류 상 건강관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 일동제약 (249420)

Analyst 이달미 talmi@kirs.or.kr  
RA 양준호 junho.yang@kirs.or.kr

KOSPI  
제약과생물공학

## 토탈 헬스케어 기업

동사는 1941년 설립, 2016년 8월 일동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하여 재상장된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제조 기업임. 동사는 만성질환치료제와 항암제 등의 전문의약품과 종합비타민과 유산균제와 같은 일반의약품을 주력으로 판매 중. 또한 B형간염치료제와 같은 다수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신규사업을 통해 토탈헬스케어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음. 2023년 2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전문의약품 55.7%, 일반의약품 37.2%, 기타 7.1%임.

## R&D 투자에 따른 임상 파이프라인 구축

동사는 전통적인 ETC 제약회사로서 기존 R&D에 대한 역량이 다소 약했으나 2020년부터 R&D 역량 강화로 매년 1,000억원의 비용을 집행하며 임상 파이프라인을 구축. 이는 동사에 단기적인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나 R&D 파이프라인 구축은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이기 때문에 동사의 기업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전망. 주요 후보물질은 당뇨병 치료제인 ID110521156인데 현재 비만치료제로서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 2023년 9월에 임상1상 IND 승인을 획득하였음.

## R&D 성과가 주가상승으로 이어질 전망

동사의 주요 경쟁사는 R&D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는 제약사들임. 시가총액이 조단위가 넘어가는 대형 제약사의 경우 R&D에 대한 성과가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루어짐. 밸류에이션 지표를 살펴보면 PSR 지표를 비교했을 때 동사의 2023년 PSR은 0.7배로 경쟁업체 평균인 1.6배보다 낮음. 따라서 시가총액과 PSR 지표 감안 시, 동사의 기업가치는 아직 R&D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다는 판단. 따라서 현재 가장 기대감이 큰 당뇨병 치료제인 ID110521156에 대한 성과가 도출된다면 동사의 기업가치는 한단계 Level-up 될 수 있을 전망이다.

##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19	2020	2021	2022	2023F
매출액(억원)	5,175	5,618	5,601	6,377	6,409
YoY(%)	2.7	8.6	-0.3	13.9	0.5
영업이익(억원)	-14	66	-555	-735	-438
OP 마진(%)	-0.3	1.2	-9.9	-11.5	-6.8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34	-130	-997	-1,416	-816
EPS(원)	-565	-547	-4,189	-5,371	-3,010
YoY(%)	적전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배)	N/A	N/A	N/A	N/A	N/A
PSR(배)	0.7	0.8	1.4	1.2	0.7
EV/EBIDA(배)	17.1	15.5	N/A	N/A	N/A
PBR(배)	1.5	1.8	5.2	4.0	4.1
ROE(%)	-5.1	-5.1	-48.9	-82.3	-54.2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Company Data

현재주가 (10/23)	16,070원
52주 최고가	45,600원
52주 최저가	14,500원
KOSPI (10/23)	2,357.02p
자본금	268억원
시가총액	4,448억원
액면가	1,000원
발행주식수	28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67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35억원
외국인지분율	5.21%
주요주주	일동홀딩스 외 15인 39.51%

## Price & Relative Performance



##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3.5	-24.2	-41.5
상대주가	-18.6	-18.2	-45.0

▶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 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 기업 개요

## 1 토탈 헬스케어 기업

동사의 주력 사업 부문은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제조

동사는 1941년 설립, 2016년 8월 일동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하여 재상장된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제조 기업이다. 동사는 만성질환치료제와 항암제 등의 전문의약품과 종합비타민과 유산균제와 같은 일반의약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B형간염치료제와 같은 다수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신규사업을 통해 토탈헬스케어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2023년 2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전문의약품 55.7%, 일반의약품 37.2%, 기타 7.1%이다.

동사는 2020년부터 R&D  
중심의 신약개발 기업으로  
거듭 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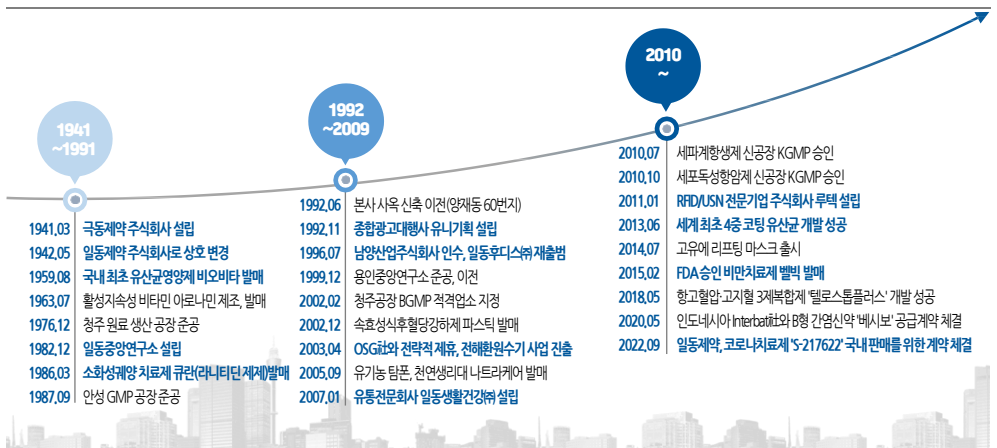
동사는 2020년도부터 본격적인 R&D 투자를 진행하며 기업의 체질을 바꿔나가고 있다. 특히 2019년에 일동 그룹 내 설립한 자회사인 에임스 바이오사이언스(임상약리 컨설팅), 아이디언스(항암 신약 개발)를 필두로 신약개발을 진행 중이다. 에임스 바이오사이언스는 신약 개발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병행하여 성공확률이 높은 후보물질을 도출시키는 전략을 기획하는 기업이며, 아이디언스는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해 설립된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기업이다.

### 동사의 기업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일동제약
대표이사	윤웅섭
설립연도	1941년 3월
임직원수	1,424명
사업영역	의약품, 의약품 원료의 제조 및 판매
자본금	268억원(2023년 2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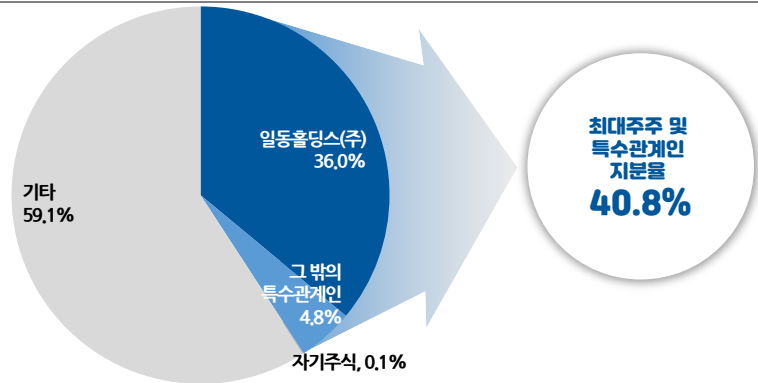
자료: 일동제약,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동사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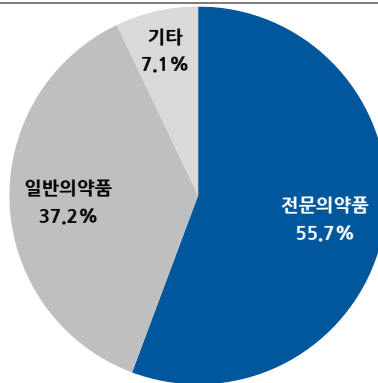
자료: 일동제약,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동사의 주주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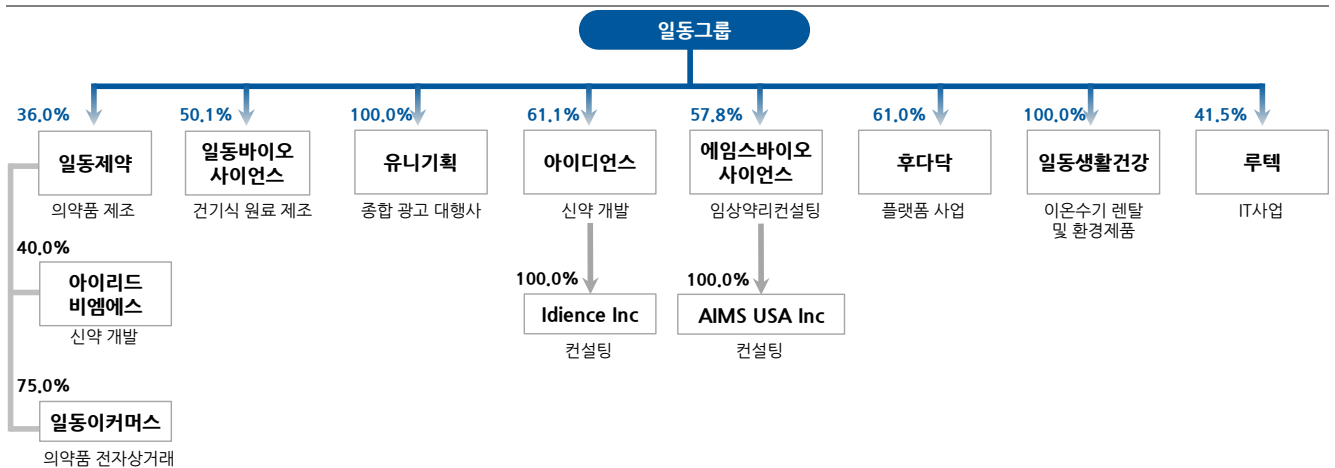
자료: 일동제약,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3년 2분기 기준

동사의 매출구성



자료: 일동제약,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3년 2분기 기준

동사의 지분구조



자료: 일동제약,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3년 2분기 기준

##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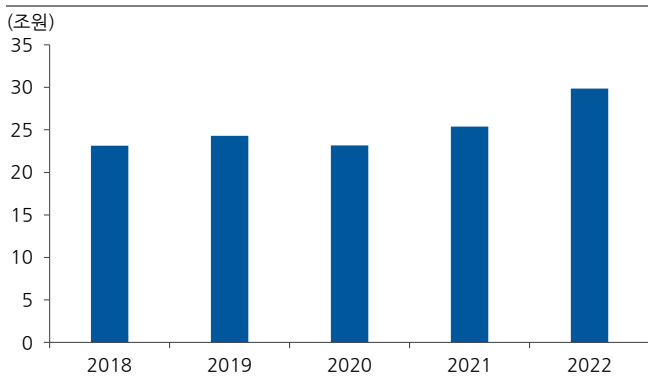
### 1 국내 제약산업 시장 현황

**2022년 기준 국내 제약산업  
시장규모는 29.9조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17.6%의 증가세  
시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제약산업 시장규모는 29.9조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17.6% 증가하였다. 국내 제약시장은 2012년 일괄약가인하 이후 낮은 시장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일괄약가인하 이후에도 제네릭 개발경쟁 심화, 영업환경 변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022년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바이오시밀러(유전자재조합의약품) 수요가 증가하였고 백신이 전 세계에 공급되면서 시장규모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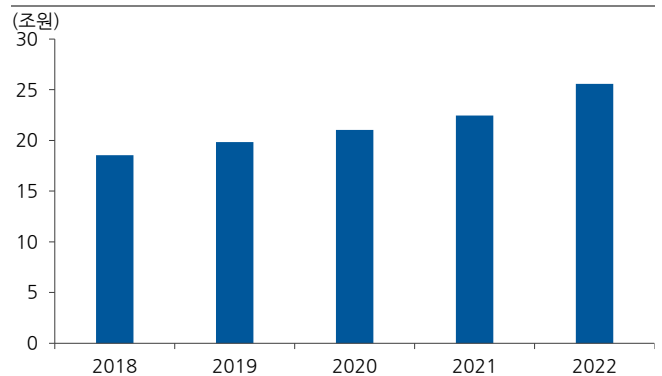
향후 제약 산업은 개인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노인성 질환의 보장성 강화, 신규 신약, 개량신약 수요의 증가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질병 치료에 대한 필요성은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제약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꾸준히 유지할 것이다.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29.9조원 수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완제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

의약품은 크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완제의약품은 다시 전문의약품(Ethical Drug: ETC)과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 OTC)로 나뉜다. 일반의약품은 경기 변동과 계절성에 민감하나 전문의약품은 소비구조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 특성상 제약산업 자체가 여타 산업대비 경기변동에는 덜 민감하나 환율 등 원료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리고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수익구조가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전문의약품(ETC)

- 약리작용, 적응증으로 볼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 진단, 감독에 따른 사용 필요
- 심각한 부작용 발현 빈도가 높은 의약품
- 적절한 용법용량 설정 필요
-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약품
- 습관성 및 의존성, 내성문제(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포함)

자료: 일동제약,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일반약품(OTC)

-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 부작용 범위가 비교적 좁음
- 일반국민이 스스로 적응증의 선택, 용량준수, 부작용 예방 및 처치 등 직접 사용 및 판단 가능
- 오남용 우려가 적은 의약품
- 경미한 질병의 치료, 예방 또는 건강의 유지증진

자료: 일동제약,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또한 최근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된 약효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UN 자료에 따르면 GDP 상위 15개 국가 중 한국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를 상회하면 고령사회, 20%를 상회하면 초고령사회라 부른다. 다음 표를 보면 2020년 이후의 수치는 UN의 전망치인데 한국은 2040년대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40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을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관련하여 제약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선진국들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 중

	1960	1980	2000	2020	2040	2060	2080	2100
WORLD	5%	6%	7%	9%	14%	19%	22%	24%
US	9%	11%	12%	16%	22%	26%	29%	30%
CHINA	4%	4%	7%	13%	26%	36%	40%	41%
JAPAN	6%	9%	18%	30%	35%	38%	39%	39%
GERMANY	12%	16%	16%	22%	29%	32%	32%	34%
UK	12%	15%	16%	19%	25%	28%	32%	33%
INDIA	3%	4%	4%	7%	12%	19%	26%	30%
FRANCE	12%	14%	16%	21%	27%	30%	33%	34%
ITALY	10%	13%	18%	23%	35%	37%	38%	38%
CANADA	8%	9%	12%	18%	24%	27%	31%	32%
<b>KOREA</b>	<b>3%</b>	<b>4%</b>	<b>7%</b>	<b>16%</b>	<b>34%</b>	<b>44%</b>	<b>47%</b>	<b>44%</b>
RUSSIA	6%	10%	12%	15%	21%	27%	27%	28%
BRAZIL	3%	4%	6%	9%	17%	26%	31%	34%
AUSTRALIA+NEW ZEALAND	9%	10%	12%	16%	22%	27%	30%	32%
SPAIN	8%	11%	17%	20%	31%	38%	39%	39%
MEXICO	3%	4%	5%	8%	15%	23%	31%	35%

자료: U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의약품은 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합성의약품과  
바이오회약품으로 나뉘

## 2 국내 제약산업의 특성

의약품은 ETC와 OTC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합성의약품과 바이오회약품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합성의약품은 합성신약, 개량신약, 제네릭으로 나뉜다. 국내 제약사업은 신약보다는 제네릭 의약품 비중이 높아 완전경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제네릭 약가는 정부의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이 또한 국내 제약산업의 낮은 시장 성장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약품은 크게 합성의약품과 바이오회약품으로도 나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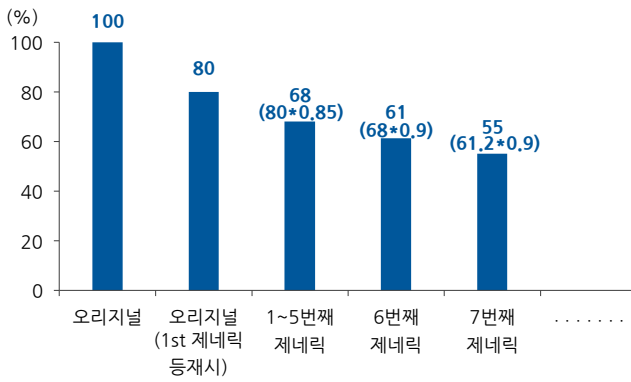
합성의약품은 합성신약, 개량신약, 제네릭으로 구분

구분	정의
합성신약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는 화학 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의약품 또는 신물질의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
개량신약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구조나 제제, 용도 등을 변형시켜 개발한 의약품
제네릭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합성의약품을 모방해 만든 의약품으로 허가된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제형 및 용법과 용량이 동일한 의약품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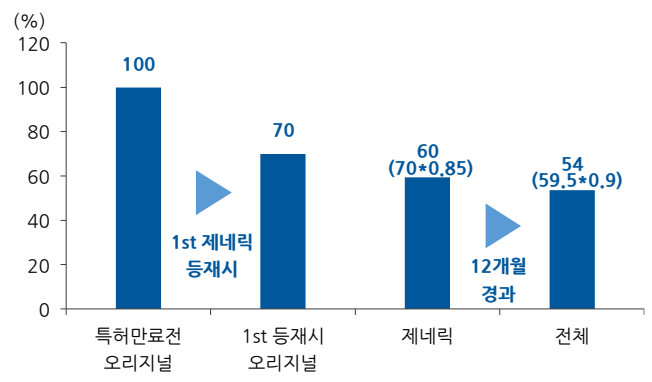
국내 제네릭 의약품은 2012년 2월 보건복지부의 일괄약가인하 시행으로 2012년 4월 1일부터 이미 특허가 만료되고 제네릭 제품이 출시된 기등재의약품 가격이 2007년 1월1일자 동일성분의약품 최고 가격의 53.55%까지 인하되었다. 2012년 이전에는 계단식으로 약가가 낮아진 반면, 2012년 이후부터는 동일성분의 제네릭일 경우 동일한 약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약가가 대폭 낮아지게 되었다. First 등재시 오리지널의 경우 오리지널 가격의 70.0%, 이후 출시되는 동일성분의 제네릭은 모두 59.5%, 12개월이 경과되면 53.55%까지 낮아지게 된다.

2012년 4월 이전 제네릭 의약품의 단계별 약가인하



자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12년 4월 이후 제네릭 일괄약가인하 시행



자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12년 이후 7년동안 일괄약가인하가 유지되다 2020년 7월 1일에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되었다. 우선 제네릭 의약품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1.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하거나, 2.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였고 약제급여목록표에 20개 이내로 약제가 등재되었다면 오리지널 약가의 53.55%를 받을 수 있다. 만약 2가지 조건 중 1가지만 만족한다면 45.52%의 약가를, 2가지 모두 만족하는 조건이 없으면 38.69%의 약가를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전보다 약가산정에 있어 더 보수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 제네릭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에게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결국은 꾸준한 R&D 투자를 통한 자체개발 의약품, 높은 개량신약 개발역량,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제약산업은 제품의 개발력과 기술력이 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 국내 선도 제약회사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약과 시장성이 높은 개량신약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에 개정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산정 구조

20개 이내			20개 이후
2개 조건 모두 만족	1개 조건 만족	만족조건 없음	최저가의 85%
53.55%	45.52% -53.55%의 85%	38.69% -45.52%의 85%	

주: 조건 1은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조건 2는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 언론보도,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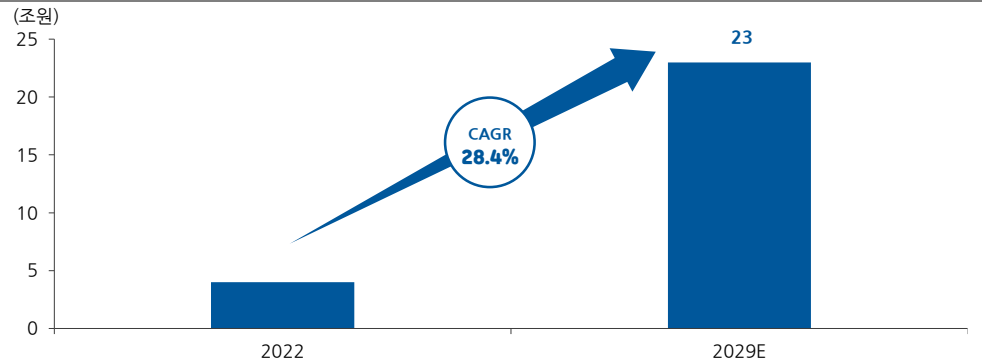
### 3 비만치료제 시장현황

#### 최근 비만치료제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중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만치료제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며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이미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비만이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 등과 같은 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Evaluate Pharma 따르면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규모는 2022년 기준 4조원(28억 달러)을 기록하였고 2029년에는 23조원(16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항암제를 제외한 다른 치료제 시장의 성장세는 5% 전후에 머물고 있지만 비만치료제만 홀로 두 자릿수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규모



자료: Evaluate Pharm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현재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을 주도하는 품목은 노보노디스크에서 개발한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타이드)'와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이다. 삭센다와 위고비 모두 GLP-1 유사체 작용제 계열 약물이며, GLP-1 제제는 음식물 소화를 늦추고 뇌 수용체에 작용해 식욕을 감소하는 방식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낸다.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임상 연구에서 체중 감량 효과를 입증하면서 비만치료제로도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 비만치료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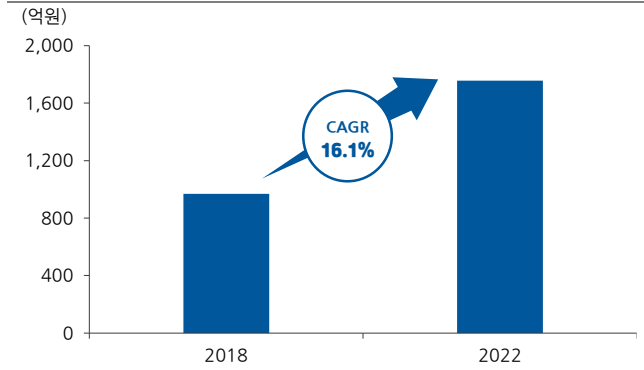
비만치료제	개발사	성분명(평균 체중감소율)	성인 대상 승인 시점	청소년 대상 승인 시점	특징
제니칼	로슈(스위스)	오를리스타트(5.0%)	1999년	X	2007년부터 성인은 처방없이 약국 구매 가능
큐시미아	알보젠(미국)	펜터민 및 토피라메이트(9.3%)	2012년	2022년(12세 이상)	유럽 연합에서 현재도 미허가
콘트라브	오렉시젠 테라퓨틱스(미국)	날트렉손 및 뷰프로피온(6.3%)	2014년	X	항우울제 성분으로 소아 청소년 사용 제한
삭센다	노보 노디스크(덴마크)	리라글루타이드(10~15%)	2014년	2020년(12세 이상)	GLP-1 계열 최초 매일 1회 투여
위고비	노보 노디스크(덴마크)	세마글루타이드(15~20%)	2021년	X	GLP-1 계열 최초 매일 1회 투여

자료: Evaluate Pharm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에서도 비만치료제 시장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규모는 지난 2018년 968억원에서 2022년 1,757억원으로 연평균 16.1% 성장하였다. 또한 국내 비만 환자 수는 2018년 1.5만명에서 2021년 3.0만명으로 약 2배 증가하며 국내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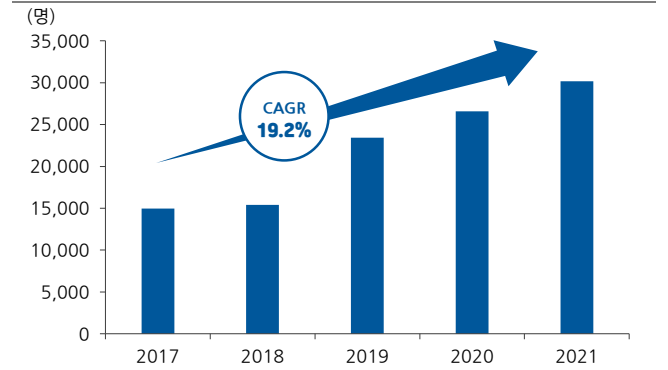
현재 국내 기업 중 가장 빠르게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한미약품이다. 한미약품은 2023년 7월 당뇨병 치료제로 일주일에 한 번 주사형태로 투여하는 '에페글레타이드' 적응증을 비만으로 변경해 국내 임상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약처에 제출하였으며 그 외에 동아에스티, HLB제약, 대원제약 등도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규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비만 환자 수 추이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2020년부터 R&D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에 집중, 따라서 다양한 파이프라인 보유 중**

**1 R&D 투자에 따른 임상 파이프라인 구축**

동사는 전통적인 ETC 제약회사로서 기존 R&D에 대한 역량이 다소 약했으나 이를 강화하기 위해 R&D 역량 강화에 대한 선언을 2020년에 하였다. 이에 따라 동사는 2020년 4분기부터 R&D비용이 증가하면서 매년 1,000억원의 R&D 비용을 집행하며 임상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다. 이는 동사에 단기적인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나 R&D 파이프라인 구축은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이기 때문에 향후 동사의 기업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전망이다.

동사는 2020년부터 R&D 파이프라인 구축에 집중하면서 현재까지 총 25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게 된 계기는 사내 랩 벤처 시스템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임상의 경우 국내 임상에만 국한 지었으나 2020년 이후부터 구축된 파이프라인의 경우 대부분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사의 연구소에도 뛰어난 맨파워를 지닌 연구원들을 초빙하였다. 그 밖에도 다양한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는 7개의 주요 파이프라인을 선정하여 개발에 집중, 향후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

**일동 그룹 내 R&D 파이프라인**

	IND						
	히트	리드 최적화	NME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NDA
대사질환				2 (당뇨)			
NASH			1	1			
코로나19 관련		1					1
안과질환		2	1				
신경질환			1				1
심혈관질환		2					
암	2	3	1		1 (아이디언스)		
기타	1	1	1	1		1	
<b>합계</b>	<b>3</b>	<b>8</b>	<b>5</b>	<b>4</b>	<b>1</b>	<b>1</b>	<b>2</b>

자료: 일동제약,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2 주요 파이프라인은 당뇨병 치료제

### 가장 기대감이 큰 치료제는 당뇨병 치료제

동사의 파이프라인 중 임상1상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후보물질은 IDG16177로 2형 당뇨병 치료제이다. 현재 독일에서 임상1상을 진행 중, 췌장 베타세포에서 G단백 수용체 GPR40을 활성화하여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새로운 기전의 인슐린 분비 촉진제이다. 이는 포도당 의존적 인슐린 분비로 저혈당 위험이 없으며 SGLT2 저해제의 병용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2021년 6월 독일 임상1상을 시작하였고 2023년 5월 환자 대상 임상1상 시험 피험자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빠르면 2023년 4분기 중 데이터 발표가 가능, 긍정적인 결과 도출 시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

동사는 또다른 2형 당뇨병 치료제인 ID110521156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비만치료제로서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 후보물질은 저분자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기전으로 기존의 치료제들이 대부분 주사제인 반면 동사의 후보물질은 경구투여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따라서 기존 주사제의 단점인 부작용과 복용순응도를 개선한 치료제로 비만치료제 뿐만 아니라 NASH치료제로도 적응증 확장이 가능하다. 지난 2023년 2분기에 비임상 시험을 완료하였고 2023년 9월에 국내 임상1상 IND 승인을 획득, 임상 진행 도중 라이선스 아웃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 동사의 주요 R&D 파이프라인 현황

번호	코드	타겟	치료 영역	적응증	클래스	임상 단계				IND 신청/임상1상 스케줄
						Hit	Lead	NME	임상1상	
1	IDG16177	GPR40	대사질환	2형당뇨 (Type 2 diabetes)	F	□□□□□□□□	□□□□□□□□	□□□□□□□□	□□□□□□□□	임상1상 (독일) 진행중 (2021.07)
2	ID119031166	FXR	간질환	비알콜성지방간염 (NASH)	B	□□□□□□□□	□□□□□□□□	□□□□□□□□	□□□□□□□□	임상1상 미국 진행중 (2022.11 ~)
3	ID120040002	H <sup>+</sup> K <sup>+</sup> ATPase	위장관질환	위식도역류질환 (GERD)	B	□□□□□□□□	□□□□□□□□	□□□□□□□□	□□□□□□□□	임상1상 국내 진행중 (2022.12 ~)
4	ID110521156	GLP-1R	대사질환	2형당뇨 (Type 2 diabetes)	B	□□□□□□□□	□□□□□□□□	□□□□□□□□	□□□□□□□□	임상1상 국내 IND 제출 완료(2023.06)
5	ID110410395	CFTR/PDE4	안과질환	안구건조증 (Dry eye disease)	F	□□□□□□□□	□□□□□□□□	□□□□□□□□	□□□□□□□□	2023 4Q
6	ID119050134	ATX	간질환	간섬유화 /간경변 (NASH -fibrosis)	F	□□□□□□□□	□□□□□□□□	□□□□□□□□	□□□□□□□□	2024 3Q
7	ID119040338	A <sub>2A</sub> /A <sub>1</sub>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 (Parkinson's disease)	F	□□□□□□□□	□□□□□□□□	□□□□□□□□	□□□□□□□□	2024 1Q

자료: 일동제약,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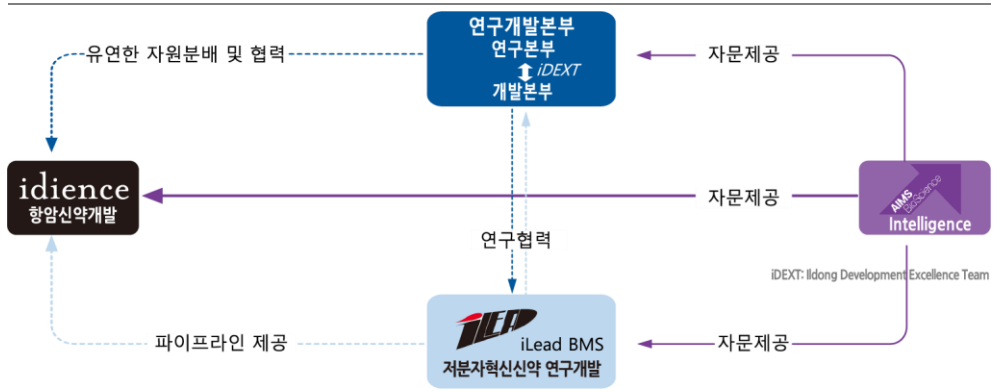
주: NASH: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IND: Investigational New Drug, Class: First-in-class (F) or Best-in-class (B), Hit: 유효물질, Lead: 선도물질, NME: New Molecular Entity(신물질 신약)

### 3 일동 그룹 내 관계사를 통한 파이프라인 확장

일동 그룹 내 관계사를 통한  
협력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  
보유

동사는 관계사와 자회사를 통해 R&D 역량을 개발 중, 이러한 관계사와 자회사를 감안하면 다양한 R&D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일동 그룹내의 계열사들은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동 그룹 내 계열사 간 협력 체계



자료: 일동제약,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우선 주목할 만한 관계사는 항암 파이프라인에 특화된 신약개발 전문회사인 ‘아이디언스’이다. 이 회사는 동사의 주요 항암 후보물질인 IDX-1197(venadaparib, 베나다파립)의 권리가 이전되면서 이 후보물질에 대한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임상 1b/2a상을 진행 중이며 Pan-KRAS, LIN28, KRAS G12D 등 다양한 후보물질들이 동사와 공동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 아이디언스의 개요

회사명	아이디언스(주)
대표이사	이원식
설립일	2019년 05월 24일
주요사업	핵심 항암신약 연구개발 및 상업화

자료: 일동제약,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아이디언스의 주요 연혁

2019.08	일동제약의 IDX-1197 (venadaparib) 권리 이전
2019.11	베나다파립 1b/2a 바구니형 임상시험 돌입 (한국)
2020.12	베나다파립 위암 1a/1b IND 승인 (미국)
2021.01	베나다파립 위암 1a/1b IND 승인 (한국)
2021.03	미국법인 (DIENCE INC) 설립
2021.12	베나다파립 위암 1a/1b IND 승인 (중국)
2021.07	항암신약(NME) ID11916 개발권 취득
2022.05	베나다파립 1b/2a 바구니형 IND 승인 (미국)
2022.08	베나다파립 US FDA 희귀의약품 지정 (위암)
2022.12	Pan-KRAS, LIN28, KRAS G12D 일동제약과 공동개발약정

자료: 일동제약,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회사는 동사의 자회사인(지분율 40%) 아이리드 비엠에스이다. 이 회사는 저분자 화합물에 특화된 신약개발 회사로 NASH, 파킨슨병, 녹내장, 유방암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에 있다. 이 회사는 분자 설계 역량과 동시 다중 약물을 타겟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보유하므로서 약물가능성이 높은 분자를 합성하여 개발 성공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경쟁력이 있다.

아이리드비엠에스의 회사개요

회사명	아이리드비엠에스㈜
대표이사	최성구
설립일	2020년 12월 15일
주요사업	신약 연구개발

자료: 일동제약,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아이리드비엠에스의 R&D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코드	적응증	전임상	유효물질	신도물질	신물질 신약	임상1상
ID119031166	비알콜성지방간, 담도질환	FXR agonist				
ID119040338	파킨슨병	A <sub>2A</sub> antagonist				
ID119050134	비알콜성지방간, 녹내장	ATX inhibitor				
ID119160021	유방암, 고모세로종, 위암, 전립선암	5th Antiandrogen				
IL2102	KRAS 돌연변이 폐암					
IL2103	파킨슨병					
IL2104	신경근계퇴행성유전질환					
IL2106	전이성 유방암					
IL2110	허위질환					
IL2112	퇴행성 신경질환					
IL2114	파킨슨병					

자료: 일동제약,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러한 관계사와 자회사들의 R&D 파이프라인을 통해 성공적인 임상 결과 도출 시, 향후 동사의 기업가치 상승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인 전망이다.





## 실적 추이 및 전망

### 매출액의 대부분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루어짐

#### 1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루어진 매출구조

동사의 매출은 2022년말 기준 전문의약품 54%, CHC(일반의약품, 헬스케어) 43%, 기타 3%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높은 만큼 연간 실적 성장률은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도 연간 실적은 매출액 6,377억원(+13.9%YoY), 영업적자 735억원 시현으로 매출 성장률이 두자리수대로 높았던 한해였다. 2022년도 매출성장세를 견인한 품목은 신규도입 품목인 소화성궤양용제 넥시움과 아로나민 시리즈의 고성장세 때문이었다. 2022년 영업적자 735억원은 2020년 이후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R&D비용을 집행, 이로 인한 적자 발생이다.

### 신약개발 부문에 대한 분할 결정으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

#### 2 2023년 신약개발 부문 분할 결정

동사의 2023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6,409억원(+0.5%YoY), 영업적자 438억원 시현이 전망된다. 2023년에 동사는 대대적인 비용집행 축소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상품에 대한 품목 조정, 원가가 높은 도입상품들에 대한 조정, 그리고 R&D비용 축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2023년 연간 매출액 성장률은 상품 품목 조정으로 인해 낮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적자는 2022년의 735억원 대비 크게 축소된 438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우선 지난 10월 5일 R&D 사업부문에 대한 분할을 결정하였다. 신설된 법인은 '유노비아'로 동사의 100% 자회사가 될 예정이다. 유노비아는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연결실적에는 R&D비용이 계속 반영이 되지만 향후 유노비아의 펀딩으로 동사의 지분율이 낮아진다면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동사의 비용 절감 의지가 강해 2023년부터는 R&D비용 축소가 예상되면서 적자규모가 2022년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실적으로 봤을때 분할 이후 R&D비용, 각종 인건비 등이 제거되면서 2023년 4분기부터는 흑자전환이 예상되어 재무구조 개선이 전망, 2024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된다. 유노비아가 독립 법인으로 분할이 되면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추가 펀딩으로 현금 유입이 가능,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의 2023년 상반기 연결실적은 매출액 3,001억원(-6.8%YoY), 영업적자 340억원 시현, 매출액은 ETC 부문에서 넥시움의 안정적인 매출창출로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나 CHC부문에서 유산균(비오비타) 매출 부진으로 전년대비 감소세를 시현하였다.

동사의 연간실적 전망 Table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E
매출액	5,174.7	5,618.5	5,601.3	6,377.1	6,409.0
ETC	2,857.0	2,709.0	2,933.0	3,410.0	3,422.4
CHC	1,912.0	2,755.0	2,545.0	2,711.0	2,723.8
기타	399.0	145.0	114.0	238.0	262.8
영업이익	-13.7	66.3	-555.4	-734.8	-437.7
세전계속사업이익	-226.3	-97.2	-1,412.1	-1,198.2	-876.3
당기순이익	-134.4	-130.2	-1,009.7	-1,421.7	-819.1

주: ETC: 전문의약품, CHC: Consumer Health Care(OTC, Health care)

자료: 일동제약,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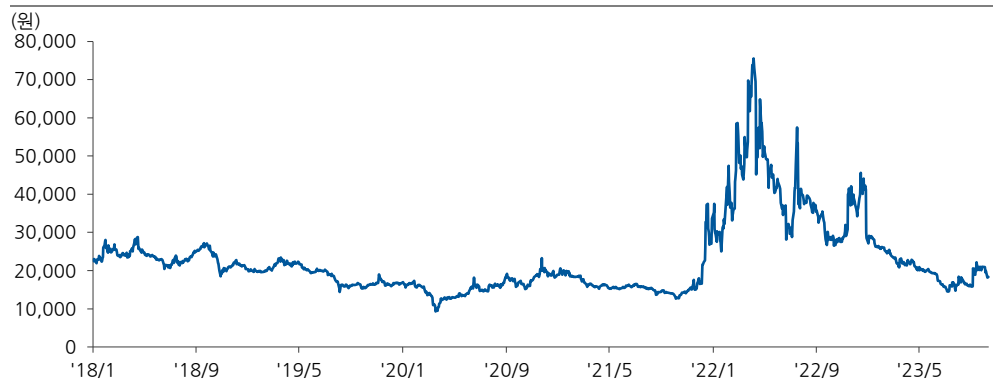
### R&D부문에서의 성과 도출이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

#### 1 R&D부문에서의 성과가 주가상승으로 이어질 전망

동사의 주요 경쟁사는 R&D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는 제약사들이다. 따라서 한미약품, 유한양행, 동아에스티, 종근당 등의 제약사들이다. 시가총액이 조단위가 넘어가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의 경우 R&D에 대한 성과가 라이선스 아웃 혹은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 도출로 나타나면서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루어졌다. 밸류에이션 지표를 살펴보면 동사는 적자기업이기 때문에 PER 비교는 힘들어 PSR 지표로 비교했을 때 동사의 2023년 PSR은 0.7배로 경쟁업체 평균인 1.6배보다 낮다. 따라서 시가총액과 PSR 지표로 봤을 때 동사의 기업가치는 아직 R&D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가장 기대감이 큰 당뇨병 치료제인 ID110521156에 대한 성과가 도출된다면 동사의 기업가치는 한단계 Level-up 될 수 있을 전망이다.

#### 동사의 주가차트



자료: 일동제약,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제약 업체 Valuation Table

(단위: 원, 억원, 배, %)

	일동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동아에스티	평균	
코드	A249420	A000100	A128940	A185750	A170900		
현재 주가 (10/23)	16,070	62,000	274,000	93,700	55,900		
시가총액	4,448	47,516	34,420	11,777	4,816		
매출액	2020	5,618	16,199	10,759	13,030	5,867	
	2021	5,601	16,878	12,032	13,436	5,932	
	2022	6,377	17,758	13,315	14,883	6,354	
	2023F	6,409	19,061	14,622	15,638	6,111	
영업이익	2020	66	843	490	1,239	340	
	2021	-555	486	1,254	948	156	
	2022	-735	360	1,581	1,099	167	
	2023F	-438	911	2,016	1,348	290	
영업이익률	2020	1.2	5.2	4.6	9.5	5.8	
	2021	-9.9	2.9	10.4	7.1	2.6	
	2022	-11.5	2.0	11.9	7.4	2.6	
	2023F	-6.8	4.8	N/A	N/A	N/A	
순이익(지배)	2020	-130	1,928	120	916	271	
	2021	-997	1,026	670	427	128	
	2022	-1,416	951	828	810	136	
	2023F	-816	967	1,195	1,067	260	
EPS 성장률	2020	3.2	381.8	-77.1	70.1	-61.8	78.3
	2021	-665.8	-46.8	460.5	-53.4	-52.7	76.9
	2022	-28.2	-7.3	23.5	89.5	5.7	27.9
	2023F	-44.0	-2.1	73.9	31.7	91.9	48.8
PER	2020	N/A	26.5	362.9	26.9	27.6	111.0
	2021	N/A	43.1	49.7	29.7	47.2	42.4
	2022	N/A	44.7	44.3	12.2	37.9	34.8
	2023F	N/A	49.9	28.8	11.0	18.5	27.1
PBR	2020	1.8	2.5	5.9	4.4	1.2	3.5
	2021	5.2	2.1	4.1	2.2	0.9	2.3
	2022	4.0	2.0	4.2	1.5	0.8	2.1
	2023F	4.1	2.2	3.5	1.6	0.7	2.0
ROE	2020	-5.1	11.1	1.7	17.9	4.2	8.7
	2021	-48.9	5.5	8.8	7.7	2.0	6.0
	2022	-82.3	4.9	9.9	13.6	2.0	7.6
	2023F	-54.2	4.8	13.0	15.9	3.8	9.4
PSR	2020	0.8	3.2	4.0	1.9	1.3	2.6
	2021	1.4	2.6	2.8	0.9	1.0	1.8
	2022	1.2	2.4	2.8	0.7	0.8	1.7
	2023F	0.7	2.5	2.4	0.8	0.8	1.6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1) 일동제약의 미래전망치는 당사 전망치, 경쟁사의 미래전망치는 컨센서스 기준, 2) 시가총액과 주가는 10월 23일 종가 기준



## 리스크 요인

### 1 CB발행으로 오버행 이슈 존재

지난 10월 20일 300억원의  
CB발행

동사는 최근 2번의 CB발행을 실시하였는데 2021년 1월에 1,000억원으로 전환가액은 20,000원, 지난 10월 20일에 추가적으로 300억원을 발행하였고 전환가액은 18,427원이다. 지난 2021년 1월에 발행한 CB는 1년만에 대부분 전환이 다 되었고 남아있는 금액은 260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최근에 발행한 CB까지 감안하면 현재 560억원의 CB가 발행된 상황인데 이는 현재 시가총액 대비 12.2% 수준으로 향후 물량이 출회되었을 때 오버행에 대한 부담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F
<b>매출액</b>	5,175	5,618	5,601	6,377	6,409
증가율(%)	2.7	8.6	-0.3	13.9	0.5
<b>매출원가</b>	2,900	3,234	3,407	4,014	4,034
매출원가율(%)	56.0	57.6	60.8	62.9	62.9
<b>매출총이익</b>	2,274	2,384	2,194	2,363	2,375
매출이익률(%)	43.9	42.4	39.2	37.1	37.1
<b>판매관리비</b>	2,288	2,318	2,750	3,098	2,813
판매비율(%)	44.2	41.3	49.1	48.6	43.9
<b>EBITDA</b>	265	343	-262	-439	-162
EBITDA 이익률(%)	5.1	6.1	-4.7	-6.9	-2.5
증가율(%)	-48.9	29.2	적전	적지	적지
<b>영업이익</b>	-14	66	-555	-735	-438
영업이익률(%)	-0.3	1.2	-9.9	-11.5	-6.8
증가율(%)	적전	혹전	적전	적지	적지
<b>영업외손익</b>	-213	-164	-857	-463	-439
금융수익	4	4	6	183	178
금융비용	52	101	874	435	405
기타영업외손익	-165	-67	11	-211	-212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b>세전계속사업이익</b>	-226	-97	-1,412	-1,198	-876
증가율(%)	적전	적지	적지	적지	적지
법인세비용	-92	33	-402	223	-57
계속사업이익	-134	-130	-1,010	-1,422	-819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b>당기순이익</b>	-134	-130	-1,010	-1,422	-819
당기순이익률(%)	-2.6	-2.3	-18.0	-22.3	-12.8
증가율(%)	적전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34	-130	-997	-1,416	-816

**현금흐름표**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F
<b>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b>	414	194	-114	-535	-562
당기순이익	-134	-130	-1,010	-1,422	-819
유형자산 상각비	188	193	202	207	215
무형자산 상각비	91	83	91	89	61
외환손익	0	8	3	7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67	-229	-15	-144	2
기타	336	269	615	728	-21
<b>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b>	-140	-184	-434	-264	20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9	-21	-90	-98	-0
유형자산의 감소	0	1	0	1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21	-144	-146	-119	0
기타	-38	-20	-198	-48	20
<b>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b>	-135	-46	1,043	-33	115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0	0	115
사채의증가(감소)	0	0	994	0	0
자본의 증가	0	0	17	0	0
배당금	-86	0	0	-1	0
기타	-49	-46	32	-32	0
<b>기타현금흐름</b>	2	-8	4	-2	-3
<b>현금의증가(감소)</b>	140	-44	500	-834	-430
기초현금	759	900	856	1,356	521
기말현금	900	856	1,356	521	91

**재무상태표**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F
<b>유동자산</b>	2,334	2,332	3,016	2,820	2,401
현금성자산	900	856	1,356	521	91
단기투자자산	11	6	191	667	669
매출채권	636	495	518	538	540
재고자산	697	892	826	982	987
기타유동자산	89	83	125	112	113
<b>비유동자산</b>	3,794	3,720	4,074	3,738	3,463
유형자산	2,595	2,564	2,478	2,553	2,338
무형자산	696	631	666	471	411
투자자산	135	234	242	233	234
기타비유동자산	368	291	688	481	480
<b>자산총계</b>	6,127	6,053	7,090	6,558	5,864
<b>유동부채</b>	2,118	1,850	3,641	3,163	3,284
단기차입금	744	654	884	1,134	1,246
매입채무	398	360	383	461	463
기타유동부채	976	836	2,374	1,568	1,575
<b>비유동부채</b>	1,480	1,657	1,842	1,413	1,417
사채	0	0	604	0	0
장기차입금	230	420	0	160	160
기타비유동부채	1,250	1,237	1,238	1,253	1,257
<b>부채총계</b>	3,598	3,507	5,484	4,576	4,701
<b>지배주주지분</b>	2,529	2,545	1,529	1,912	1,097
자본금	227	238	238	268	268
자본잉여금	2,389	2,096	2,103	3,773	3,773
자본조정 등	-3	-3	-3	-3	-3
기타포괄이익누계액	-35	66	11	-14	-14
이익잉여금	-49	149	-820	-2,111	-2,927
<b>자본총계</b>	2,529	2,545	1,606	1,982	1,163

**주요투자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F
P/E(배)	N/A	N/A	N/A	N/A	N/A
P/B(배)	1.5	1.8	5.2	4.0	4.1
P/S(배)	0.7	0.8	1.4	1.2	0.7
EV/EBITDA(배)	17.1	15.5	N/A	N/A	N/A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565	-547	-4,189	-5,371	-3,010
BPS(원)	10,624	10,694	6,424	7,135	3,963
SPS(원)	21,739	23,604	23,532	24,191	23,649
DPS(원)	0	0	0	0	0
<b>수익성(%)</b>					
ROE	-5.1	-5.1	-48.9	-82.3	-54.2
ROA	-2.3	-2.1	-15.4	-20.8	-13.2
ROIC	-3.4	4.2	-21.5	-17.7	-11.7
<b>안정성(%)</b>					
유동비율	110.2	126.1	82.8	89.2	73.1
부채비율	142.3	137.8	341.5	230.8	404.1
순차입금비율	29.8	31.8	123.9	72.1	169.5
이자보상배율	-0.3	1.4	-5.3	-7.5	-5.1
<b>활동성(%)</b>					
총자산회전율	0.9	0.9	0.9	0.9	1.0
매출채권회전율	7.7	9.9	11.1	12.1	11.9
재고자산회전율	8.4	7.1	6.5	7.1	6.5



##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시가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무상 보고서로, 투자자들에게 국내 중소기업 상장사에 대한 양질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 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